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치과클리닉이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인디오마을에 구입한 땅에 선  
을 긋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감사선교센터 공사가  
일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만, 설령 많은 비용을 준다고 해  
도 기술자들은 멀리 인디오마을에 들어가기  
를 꺼려하고, 기본적인 화장실시설이나 음식과  
잠자리 등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을 진행하다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헌신된 과달라하라 주님의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새벽에  
길을 떠나 수요일까지 공사를 하고  
과달라하라와 인디오마을(헤수스  
마리아 꼬르메스)을 오고가며 수요일  
기도회와 목장모임 그리고 주일예배와  
삶공부를 이어가는 일을 일여년  
넘게 해 오면서 드디어

치과클리닉과 화장실 그리고 샤워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 중 두 차례의 낙상사고로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편도 4시간 거리를 매주 오고가면서  
졸음과 싸우기도 하고 차가 멈추는 일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위출(Huichol)인디오 마을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한 감사선교센터를 지어갈 수 있어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인디오 마을 사람들을 위해 두 개의 치과 의자를 설치 할 수 있었고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들은 조금씩 갖추어 가면서 함께 섬겨주실 좋은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생동안 제대로 된 치과진료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인디오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며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상상하며 하나씩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마음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아직, 필요한 치과클리닉의 수납공간과 몇 가지 기구들, 그리고 예배당 내부 천장공사와 바닥 타일 공사, 필요한 의자와 음향시설, 그리고 무더운 마을이라 에어컨 등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 인디오마을 복음전도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어지길 소원하며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과달라하라 주님의교회 사역을 이양하기 전 좀 더 잘 세워주고자 영혼구원과 제자만드는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인디오마을에 시작한 감사선교센터의 예배당과 치과클리닉 공사로 인해 매주 오고가다보니 과달라하라 주님의교회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속히 공사가 마쳐져서 하나님의 소원이신 영혼구원을 통한 제자만드는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인디오마을 예배당

공사 중에 세 명의 젊은 여성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인디오마을을 찾아다니며 인디오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오마을에 멋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위해 밤늦게 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장소에 대해, 함께 일하는 우리들에 대해 관심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세 영혼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눈물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디오마을에 추수할 많은 영혼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갈급하시다는 느낌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곳에 세워지는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벅찬 기대와 감격을 가슴에 기리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합목장모임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에는 연합목장모임으로 모여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목장발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이들을 더해 주셔서 감사가 있습니다. 연합모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 가족의 모습을 더욱 견고히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형제자매들로 인해 감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서 세상을 향한 전도자로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올 초에 소개를 통해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국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때를 여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처럼 더 많은 선교지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소망해 보며 함께 섬겨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감사로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 1) 8월 24일 하비엘형제의 목사안수식과 사역이상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 2) 인디오 마을에 세워질 선교센터(예배당과 치과진료시설) 1차 공사가 잘 마무리 되고, 2차 공사인 숙소관이 잘 건축되어지도록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3) 선교센터 공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형제들의 강건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 4) 치과 선생님들이 잘 연결되어 치과클리닉과 감사센터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2025년 5월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